

Controversy Over the Relative Pronoun ‘That’ And the Complementizer ‘That’

관계대명사 That과 보문자 That에 관한 논쟁

Yoon Jin Lee¹, Mun Koo Kang²

이윤진¹, 강문구²

¹ College Lecturer, Dept. of Liberal Education, Kongju Univ., Korea, xcoiicox@naver.com

² Professor, Dept. of English, Kongju National Univ., Korea, kangmunkoo@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Mun-Koo Kang

Abstract: *That* in a relative clause is grammatically regarded as a relative pronoun. Compared with *wh*-relatives, it has been acknowledged that the relative clause does not have all the roles of relative pronouns through previous research. Since relative pronouns act as conjunctions and pronouns, they play a syntactic role as a noun, but they do not apply in some parts. So, for a long time, transformational grammarians have been insisting that *that* is not a relative pronoun. In this paper, from a neutral standpoint, it is revealed that the relative clause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ronoun, but cannot be considered a complete pronoun.

Keywords: Relative Clause, Relative Pronoun, Conjunction, Pronoun, Syntactic

요약: 관계절에서 사용되는 *that*을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라고 보통 지칭한다. 하지만 *wh*-관계사와 비교하면 관계절 *that*은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선형 논문들을 통해 인정하게 된다. 관계대명사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적인 통사적 역할을 하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변형 문법가들은 *that*을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계절 *that*은 대명사의 특징을 갖고는 있으나 완전하게 대명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관계대명사 *that*은 고대영어 때 접속사에서 시작하여 대명사로 점점 확립되고 있는 과정 중이기에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겠다.

핵심어: 관계절,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명사, 통사적

1. 서론

관계대명사 *that*은 고대영어에서부터 시작되어 다른 관계대명사들과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존재하고 있는 문법이다. 관계대명사 *that*은 중세 영어와 현대영어 초반까지 관계절에서 자주 등장했으나 관계사 *who*와 *which*가 등장하면서 관계대명사 *that*의

Received: September 11, 2022; 1st Review Result: October 26, 2022; 2nd Review Result: November 28, 2022
Accepted: December 31, 2022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대영어 *that*의 문법적 기능으로 부사, 접속사,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관계대명사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관계대명사 *that*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과 특징들을 고찰하고, 관계대명사 *that*의 기능이 관계대명사 *that*인지 혹은 보문자 *that*인지에 관한 논쟁에 대한 근거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통 문법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논쟁은 영어 문법 체제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논쟁의 중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해서 제2장에서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고대영어와 중세영어로 나누어 관계대명사의 기능과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이 생겼는지 알아보겠다. 제3장에서 본 논문의 주제인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을 알아보고 *that*을 관계대명사로 보는 주장과 보문자로 보는 주장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견해의 차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의 주 관심사는 관계대명사 *that*의 의미와 기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관계사 전반에 관한 논의보다는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역사적인 배경을 2장에서 알아보고 3장에서 관계대명사 *that*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논의하겠다.

2.1 관계대명사의 정의

관계사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며 대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똑같이 한다는 의미로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라 불린다. 또한 관계사가 속한 절을 종속절이라 부르고 나머지 절을 주절이라 한다. Rosenbaum(1970)[1]은 관계대명사로 사람을 칭할 때는 *who* 또는 *that*을 사용하고 사물을 칭할 때는 *which* 또는 *that*을 사용하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관계대명사가 속한 절을 관계절이라 하고 이 관계절 속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 등을 생략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 *that* 등이 들어간다고 Quirk et al(1985)[2]은 언급한다. 다음으로 관계대명사란 대명사와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하며 말의 반복을 피하고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다. 관계대명사는 일반 관계대명사, 유사 관계대명사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로 분류한다. 일반 관계대명사는 *who*, *whom*, *whose*, *which*, *that*, *what* 이 있고 유사 관계대명사로 *as*, *than*, *but*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로는 *whoever*, *whichever*, *whatever*이 있다. 관계대명사 정의에 관한 선행 연구 이론을 살펴보면 Sonnenshein(1916)[3]가 주장하는 관계대명사란 접속사처럼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라 하였으며 Curme, G. O (1947)[4]은 관계대명사가 종속절에서 쓰이며 내포문 속에 있는 선행사를 나타내기 위해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주장한다.

2.2 관계대명사의 발달 과정

현대영어에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천 과정이 이루어져왔는지 알기 위해서 고대 영어, 중세 영어, 현대 영어 시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영어시대 구분 t

[Table 1] The Division Of the English Age

Old English	449-1100	se pe, seo pe, þæt
Middle English	1100-1500	þæt->that, who, which, what, whose, whom
Modern English	1500-	that, who, which, what, whose, whom

언어는 계속해서 변한다는 말처럼 관계대명사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영어에 오기까지 끊임없는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계대명사라는 정확한 문법 형태는 11세기 중세 영어 때, *that*으로 시작했고, 그 후 14세기에 *which*, 16세기에는 *who*가 등장하였다. 그중, 관계대명사 *that*의 시초는 고대영어 때 사용했던 지시대명사에서 유래했으며 지시대명사는 그 당시에 남성, 여성, 중성, 단수, 복수에 따른 여러 형태들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고대영어 때, 관계대명사라는 형태가 뚜렷하게 없었지만 ‘*þe*(=*the, any*)’ 불변화사형이나 지시대명사인 ‘*se*(남성)’, ‘*seo*(여성)’, ‘*þæt*(중성)’등이 있었는데 불변화사형 ‘*þe*’와 지시대명사가 만나 ‘*se pe*’, ‘*seo pe*’처럼의 형태를 갖추어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했다. (Jo, 1979)[5]. 그러다 중세 영어에 들어와 다양한 지시대명사 형태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고대영어 때 지시대명사와 합쳐져 관계대명사 기능을 했던 *þe* 역시 사라졌지만 시간이 지나가도 어형 변화가 없었던 중성대명사 *þæt*가 영어에서 모든 ‘성, 수, 격’을 구별 없이 사용하게 되어 관계대명사 *that*은 *þæt*에서 유래되어 생겼다고 Jespersen(1909)[6]은 주장한다.

In OE relative Clauses were intrduced by demonstrative pronouns(m. *se*, f. *seo*, n. *þæt*) or by the “relative particle” *pe* or by both jointly. *pe* disappeared in the ME period, and *that* which represent OE *þæt* or perhaps to some extent *þæt-pe*, *þætte*, became the ordinary relative word. How this came to be used after masculine and feminine antecedents and after plurals, has never been completely elucidated.

(Jespersen 1969:80)[7]

이처럼 중세 영어때부터 *þæt*로 일치시켜 사용하다가 관계대명사의 성과 격을 확실히 표기하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이 *þæt*에 3인칭 대명사를 붙여서 지금의 관계대명사로 변천했다고 Wright(1925)[8]은 주장한다.

[표 2] *þæt*과 3인칭 대명사[Table 2] *þæt* And Third Personal Pronouns

<i>þæt</i> + <i>he</i> = <i>who</i>	<i>þæt</i> + <i>it</i> = <i>which</i>
<i>þæt</i> + <i>his</i> = <i>whose</i>	<i>þæt</i> + <i>him</i> = <i>whom</i>

즉 관계대명사 *that*은 고대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로서 쓰이지 않았으나 지시대명사로 시작하여 현재 관계대명사로까지 변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여러 지시대명사 중에서 *that*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세 영어 때, 관계대명사 *who*, *which*, *what*이 등장하였고 12세기부터는 *whose*, *whom*이 등장하면서 관계대명사의 기능을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15세기에는 의문사 역할을 했던 *which*가 *that*을 대신하여 관계대명사의

기능을 갖기는 했으나 *that*의 역할만큼 따라가지는 못했다. 그만큼 *that*의 사용이 컸다. 그리고 *which*가 등장했던 초기에는 선행사가 중성일 경우에 주로 *which*를 사용했지만 아래 인용문처럼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도 쓰였다.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ned unto a man which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Matthew xiii, 24, King James Bible)

문에 부흥기였던 16세기에 영어 문체가 다양하고 세련된 언어로 자리가 잡히면서 그 당시에 관계대명사가 속한 종속절이 문장에 많이 쓰이게 되면서 관계대명사 역시 사용 빈도수가 많아졌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용하는 관계대명사 *who*도 이 당시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Curme(1947)[4]은 *who*가 현대영어에서 쓰이는 관계대명사 *who*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who*가 없었을 당시에는 *which* 혹은 *pe which*로 쓰였다.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더욱 분명해지기 위해 *who*와 *whom*은 생물을 가리키고 *whose*는 생물과 무생물을 다 가리켰다. 다음 *what*은 *hwa*의 중성형 *hwæt*인 의문대명사로만 사용하다가 13세기 이후 관계대명사로 쓰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생물과 무생물 둘 다 가리켰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규칙에 따라서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관계대명사 *which*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오늘날의 관계대명사 *which*의 사용이 많지만 옛날 영어에 비하면 사용빈도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선행사가 생물일 경우에도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who*와 *that*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선행사가 생물일 경우에는 *who* 또는 *that*이 사용되고 무생물일 경우에는 *which*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Seong-sik, Jo, 1974:331)[9]. 추가적으로 관계대명사 *who*, *whom*, *what*, *which*는 고대 영어에서 사용된 의문사에서 파생되어 고대 영어 *hwā*는 중세 영어에서 *whō*, 현대 영어에서는 *who*, 그리고 대격형 *hwone*는 초기 중세 영어에서 *hwon*이었으나 후기 중세 영어에서는 여격형 *whom*으로 대체되었으며 중세 영어 속격형 *whōs*의 어간 모음 [ō]는 유추적인 것으로 주격과 목적격 영향에 기인하여 현대 영어 속격형인 *whose*가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hwæt*에서 *what*으로 *hwylc*은 *which*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관계대명사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보면 시대에 따라 여러 형태들을 거쳐서 지금의 문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의 표를 제시하며 제2장을 끝내겠다.

[표 3] 시대에 따른 변천과정

[Table 3] The Process Of Change According To the Times

		OE	ME		MnE	
			관사	지시사	관사	지시사
남성	단수 주격	sē	þe [θə]	þat [θat]	the [ðə]	that [ðæt]
	대격	þone				
	여격	þæm, þām				
	속격	þæs				
	도구격	þý, þē, þon				
여성	단수주격	sēo	þe	þat	The	that
	대격	þā				
	여격	þære				
	속격	þære				
중성	단수 주격/대격	þæt	þe	þat	The	that
	여격	þæm, þām				

	속격	ḥās				
	도구격	ḥy, ḥē, ḥon	-	-	-	-
공통 복수	주격/대격	ḥā	ḥe	ḥō	The	those
	여격	ḥām, ḥām				
	속격	ḥāra				

3. 현대영어 That

3.1 현대영어 That에 관한 논쟁

현대영어 *that*은 중요한 관계대명사 중 하나이지만 사용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다른 관계사들보다 오랜 역사 과정을 갖고 있는 *that*이고, 중세 영어 이래로 광범위하게 쓰였다. 하지만 *wh*-관계사들이 등장하면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를 사용하게 되면서 *that*의 사용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wh*-관계사에 비해 *that*은 관계 접속사적인 성격이 강하여 제한적으로 쓰이고 비제한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that*은 선행사로 사람이나 사물 모두 지칭할 수 있어서 그 비중을 크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선행사를 사람으로 쓸 때 *that* 대신에 *who*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that*이 본래 중성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절에서 사용하는 *that*이 관계대명사 *that*인지 접속사 *that*인지에 관한 논쟁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 논쟁은 Jespersen(1885)[10]에서 시작되었다. Jespersen(1924-27)[11], [12]은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점만 갖고 있었지만 1920년 이래로 그는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라 접속사나 불변화사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변형 문법학자들도 보문자 *that*이라는 연구를 내놓았다. 이 주장에 대해 Kruisinga(1924)[13]도 동의하였으며 Vander (1985)[14]은 접속사의 차이에 대해 아래 글처럼 지적한다.

...But it would only be fair to add that there is still an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hope that never dies and the hope that it was all wrong.

(Vander 1985:27-41)[14]

또한 전통 문법학자들 중 Curme(1931)[15], Fowler(1931)[16], Onions(1932)[17], Poutsma(1926)[18]도 *that*을 관계대명사라고 간주하여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를 밝히고자 노력했다. 반면에 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1985)[2]는 관계대명사 *that*이 맞다고 반박했다.

3.1.1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that*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관계절 속의 *that*이 관계대명사가 맞다는 주장들을 위주로 함께 보겠다. 먼저 관계대명사 *that*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첫째, 대명사와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둘째, 선행사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that*은 불변화사이다. 셋째, *that*은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나 명사절을 이끈다. 그래서 *that*은 관계절에서 주어 역할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 목적어 역할을 함으로써 *that*은 대명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전치사 목적어의 역할에서 *that*을 관계대명사로 볼 것인가 보문자로 볼 것인가라는 논쟁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알 수 있다. *Wh*-관계사 대명사는 전치사 뒤에 바로 나올 수 있고 또 전치사를 관계절 맨 뒤로 이동시킬 수 있다. 즉 전치사 동반 이동 및 분리가 다 가능하다. 하지만 *that*은 전치사와 같이 나올 수 없고 분리만 가능하다. 이 근거로 Jespersen(1927)[12]은 *that*을 관계대명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Roberts(1954)[19]는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이 올 수 없다는 것으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아래 예문처럼 관계대명사 *that*이 예문(1a, b)에서 각각 목적어와 주어라고 본다면 (1c) 역시 전치사의 목적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 a. I love the boy that you've met.
 b. I love the boy that has met you.
 c. This is the boy that/who(m) I have given a pen to.

예문 (1c)에서 전치사 *to*가 맨 뒤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 바로 뒤에 *that*이 나오지 못하는 점은 단순히 영어 어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that*은 관계대명사가 맞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임정성(1992)[20] 역시 전치사가 분리되어 있으나 여전히 관계대명사를 전치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주장을 근거로 관계대명사 *that*과 *wh*-관계사를 구분하는 어순의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 해답은 관계대명사 *that*의 발달과정에서 알 수 있다. 제2장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관계대명사 *that*은 중세 영어 종속 접속사인 *Þæt*에서 왔고 이것은 고대 영어의 불변화사인 *Þe*와 종속 접속사 *Þæt*를 결합한 것이다(Helgander, 1971: 276-8)[21]. 불변화사인 *Þe*가 13세기 말에 사라지면서 *Þæt*이 같은 의미로 생겨났다(Traugott, 1972:152)[22]. 즉 관계대명사 *that*의 원천인 *Þæt*은 고대영어의 접속사 역할을 한 *Þæt*에서 비슷한 모양을 받았고 불변화사인 *Þe*의 기능도 이어받은 것이다. 또한 중세 영어에서 관계대명사 *that*의 기능을 *Þæt*에 확립할 때 고대영어에서 중성 관계대명사 *Þæt*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세 영어의 *Þæt*의 모든 기능이 고대영어의 중성 관계대명사인 *Þæt*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나열하겠다.

중세 영어 *Þæt*이 고대영어 중성 관계대명사인 *Þæt*에서 유래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은 관계절에서 고대영어 *Þæt* 앞에 전치사가 오지만 중세 영어 *Þæt* 앞에는 전치사가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Traugott, 1972:153)[22]. 관계절 *Þæt*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고대 영어의 불변화사 관계사인 *Þe*의 기능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즉, 불변화사 *Þe*이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없어서 고대영어를 보면 전치사는 필히 좌초현상을 받았다. 그러나 불변화사 *Þe*와는 별개로 *se*, *seo*, *Þæt* 절에서는 항상 전치사가 앞에 왔다. 예문을 통해 보겠다.

- (2) Ohthere sæde Þæt sio scir hatte Halgoland Þe he on bude = (Ohthere said that that shire was-called Heligoland that he in lived)
 (King Alfred's Orosius 19.9)

관계대명사 *that*은 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who* 역시도 *whom* 어형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whose*는 *of whom*과 *of which*로 변해가고 있고 *which* 역시 형태론적인 속격과 목적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which*는 왜 대명사적 기능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주격이나 목적격의 기능을 하는 *wh*-관계사도 부정사 관계절에 쓰일 수 없다고 한다. 예문을 통해 보겠다..

- (3) a. * I am looking for a woman who to love me.
b. * I am looking for a woman whom to love.

다음으로는 *that*의 수를 보면 지시대명사 *that*하고는 다르게 관계대명사 *that*은 복수의 형태가 없다는 근거로 비대명사이다라고 주장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wh*-관계사도 복수의 형태가 없으므로 문제 제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1.2 보문자 That

*that*을 관계대명사로 보기에 *wh*-관계사와 비교하면 다른 통사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형문법학자들은 *that*을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즉 보문자로 보는 게 맞다는 논쟁이 시작되었다. *that*이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논의해 보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한 문장이 다른 한 문장 안으로 들어가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을 내포하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부른다. 즉 *that*이란 종속접속사로서 바로 절이 함께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변형생성문법에서는 보문자(*complementizer*)라 지칭하고 약자로 *COMP*라고 쓴다.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보문자 *that*이라는 주장을 살펴 보기 전에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예문을 통해서 보겠다. 먼저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3가지로 나눠 제시하자면 첫 번째, 접속사 역할을 하는 종속절 기능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주절의 명사구 즉 선행사와 종속절의 명사구를 이어주는 새로운 명사구의 형태소를 갖는다. 세 번째로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역할을 종속절에서 대신하고 명사구의 통사적 기능인 주어, 목적어 등 역할을 한다.

- (4) She saw the box that has many stuffs.

예문 (4)를 보면 *that* 이하 절은 종속절이고, 관계대명사 *that*은 *that has many stuffs* 과 *that* 앞에 나오는 선행사 *the box*를 합쳐서 *the box that has many stuffs*이라는 새로운 명사구를 만들었으며 *that has many stuffs* 속에서 선행사 *the box*를 대신하는 *that*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that*은 관계대명사이다. 즉 예문 (4)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의 이론이라 볼 수 있는데 왜 관계대명사 종류들 중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보문자로 보는 견해들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아래 예문을 통해 보겠다.

- (5) I know **that** you don't understand.

위 예문의 *that*을 관계대명라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논하자면 먼저 *that*이 문장 속에서 종속절의 기능을 갖고 있고 새로운 명사구를 유도하고 있지만 명사구의 통사적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위에 언급한 관계대명사의 세 가지 역할에 의거하면 *who*, *whose*, *whom*, *what*, *which*만이 관계대명사라고 보는 견해이다. 관계절 속의 *that*은 관계대

명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Jespersen(1924)[11]의 연구들을 보겠다. 관계대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기능을 할 때 전치사 다음에 바로 wh-관계대명사가 나오거나 wh-관계사절에서 맨 마지막에 전치사가 나올 수 있다. 즉 아래 예문처럼 wh-관계 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전치사의 수반이동 및 좌초현상이 가능하다.

- (6) a. I knew the boy **whom** you talked **about**.
 b. I knew the boy **about whom** you talked.

하지만 Jespersen(1924:85)[11]의 주장에 따르면 that이 관계대명사의 역할 중 대명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치사 다음에 that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래 예문 (7a)처럼 전치사 좌초 구문은 가능하지만 예문 (7b)과 같이 전치사 바로 뒤에 that이 위치하는 것을 비문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관계대명사 that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 (7) a. I'm going to visit Korea **that** my parents live **in**.
 b. * I'm going to visit Korea **in that** my parents live.

다시 말해서, 대명사 역할 중 하나로서 전치사 바로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다. 하지만 that이 관계대명사라면 전치사 바로 뒤에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관계대명사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 반박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전치사 바로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Araki, 1958:90)[23]. 주장에 따르면, 바로 위 언급된 문제점을 빼면 명사구의 통사적 기능 등 다른 관계대명사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으로 전치사 수반이동 및 좌초현상 모두 가능하게 된다면 부정사 관계사 구문과 복합 관계사 구문에서 wh-관계사는 대명사가 아니라고 지적해야 한다. 아래 예시를 통해 보면 예문(8a)는 부정사 관계사 구문에서 전치사 수반이동만 가능하다고 Emonds(1976:192)[24]는 언급했고 예문 (9a)처럼 복합 관계사 구문에서 전치사 좌초 현상만 허용된다고 Helgander(1971:207-209,268)[21]은 주장한다.

- (8) a. This is the person **with whom** I played soccer yesterday.
 b. *This is the person **whom** I played soccer yesterday **with**.

- (9) a. He liked **whatever** she wanted **to**.
 b. * He liked **to whatever** she wanted.

첫째,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와 선행사의 수가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행사가 단수이면 주격 관계대명사도 단수여서 바로 단수 동사가 나와야 하고 선행사가 복수이면 주격 관계대명사 역시 복수여서 복수동사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that이 관계사라면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that처럼 수에 따라 that 또는 those라는 형태가 바뀌어야 하지만 관계대명사 that의 이론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 (10) The pencils **that/*those** I have....

위 예문을 통해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이에 반박하는 견해들을 보면 두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먼저 *wh-*관계사들 역시 수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데 왜 *that*만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계절 속의 *that*이 왜 지시대명사 *that*의 역할과 같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다. 둘째, 관계대명사 *that*은 *who*처럼 목적격 *whom*이나 소유격 *whose*등 격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론자들은 *which* 또한 사격이 없으나 이 이유로 *which*의 대명사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영어에서 *who*의 목적격인 *whom*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면서 점점 상실되어가고 있지만 본래 모습인 *who*의 대명사의 지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셋째,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채귀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 *that*인 경우에는 뒤에 나오지 못한다(Kruisinga, 1927:29, Erades, 1955:52)[25][26].

(11) Eric, **who/*that himself** had been a member of the band, was working as an animator at The Simpsons.

하지만 위 주장에 대해 Jespersen(1927:168)[12]은 아래 예문처럼 가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2) This is the man **that** had written the article **himself**.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학자의 새로운 견해를 더 추가하자면, (Bas Aarts, 2011: pp.179-202, Mun-Koo Kang, 2017)[27], [28]에서 *that*을 관계사가 아니라 종속접속사 *that*으로 관계절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Bas Aarts에 따르면 대명사는 전치사의 보충어로 쓰일 수 있으나 (to whom/ to which) 접속사 *that*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the person to that ...) 즉 대명사의 기능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간주된다. Bas Aarts가 출간한 *Oxford Modern English Grammar* 에서 나오는 예문을 인용하여 보겠다.

(13) a. The **power**_[clause that Ø_{rel} enables this union] Coleridge categorized as the imagination.
b. The nature of the **work** _[clause that we do Ø_{rel}] is no different from any other creative arts group.

예문(13a)와 (13b)처럼 겉으로 드러난 관계성분이 없어 보이지만 ‘Ø_{rel}’로 표현된 암시적 관계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3a) 예문에서 *that*의 선행사가 *power*가 아니라 *that* 뒤에 숨어있는 암시적 관계구의 선행사가 *power*이고 이 관계구는 주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13b) 예문에서도 암시적 관계구의 선행사가 *work*이고 이는 동사 *do*를 후행하는 직접목적어이며 이처럼 비주어 공백과 관련될 때 *that*의 생략이 가능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관계절 속의 *that*을 관계대명사로 간주해야 할지 혹은 보문자로 간주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 논문으로써 관계대명사 자체의 이론과 특징 및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관계절 *that*에 관한 논쟁은 Jespersen(1885)[10]의 의문점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의 역사적인 변화 형태들을 바탕으로 학자들의 대비되는 주장들을 검토하였다.

wh-관계사와 *that* 관계사를 비교하면 몇 가지 통사적 차이점들이 있었다. 소유격형은 명사구의 통사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관계절에서 *wh*-관계사는 소유격형이 있고 *that*은 소유격형이 없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구가 따라오지만 *that*으로 시작되는 관계절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that*이 나올 수가 없다. 이처럼 *wh*-관계사는 명사구의 통사적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that*은 해당되지 않는 이유들 때문에 완전한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현대영어에서의 관계대명사 *that*의 기능으로 대명사 역할을 하고 접속사에서 계승한 사실로 봤을 때 관계대명사 *that*의 범주가 변화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변화했다고 해서 지금의 관계대명사 *that*의 문법적인 이론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다. 고대영어의 *þe* 그리고 중세 영어인 *þat*처럼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즉 관계대명사 *that*의 대명사적 역할의 완성이 되지 못한 것이다. 결국 관계대명사 *that*은 대명사적 역할은 하지만 완전히 대명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오래전부터 변형문법학자들은 *that*을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관계대명사 *that*은 대명사 성격이 강하여 보문자보다 관계사로 보는 것이 더 맞지만 기원을 바탕으로 봤을 때 완전한 대명사라고 볼 수는 없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말이 있듯이 관계대명사 역시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의 출발점은 접속사에서 시작하여 대명사로 범주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이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어 나가야 한다.

References

- [1] P. S. Rosenbaum,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Cambridge Mass.: M.I.T.Press, (1970)
- [2] R. Quirk, S. Greenbaum, G.Leech, and J. Svartvik,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1985)
- [3] Sonnenshein, *A New English Grammar,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Joint Committee on Grammatical Terminology Part1-3*, Clarendon Press, (1916)
- [4] G. O. Curme, *English Grammar*, Boston:Heath, (1947)
- [5] Seong-Sik Jo, *A Grammar Theory of Otto Jespersen (II)*, Phoennix, (1979)
- [6] Otto Jespersen,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London: George Allen&Unwin, (1909)
- [7] Otto Jespersen, *Analytic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First published in 1937), (1969)
- [8] J. Wright, *An Elementary Middle Gram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5)
- [9] Seong-Sik Jo, *The Theory of English Grammar*,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1974)
- [10] Otto Jespersen *Kortfattet Engelsk Grammatik for Tale-og Skriftsproget*, Kobenhavn: Carl Larsens Forlag, (1885)
- [11] Otto Jespersen,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Unwin, (1924)

- [12] Otto Jespersen,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Vol. III, Heidelberg: Carl Winter, (1927)
- [13] Etsko Kruisinga, *A Graamr of modern Dutch*, Generic, (1924)
- [14] Johan Vander Auwera, *Relative that- a centennial dispute*, *Journal of Linguistics*, (1985)
- [15] George O. Curme, *Syntax*, New York: D.C. Heath and Co, (1931)
- [16] H. W. Fowler, F. G. Fowler, *The king's English*.3r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31)
- [17]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6th 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32)
- [18] H. Poutsma,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Pt. II, Noordhoff, (1926)
- [19] P. Roberts,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4)
- [20] Jung-Sung Ihm, *A Diachronic Study of Relative "that"*, Gyeongnam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1992)
- [21] Helgander John, *The Relative Clause in English and Other Germanic Languages: A Historical and Analytical Survey*, University of Gothenburg doctoral dissertation, (1971)
- [22] Elizabeth Clossç Traugott, *The History of English Syntax: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the History of English Sentence Structure*, New York: Holt, Rinehart&Winston, (1972)
- [23] Kazuo Araki, *Pronoun or Conjunction? - Relative that, as, but than*. In Araki. K(ed), *Studies in English Grammar and Linguistics*, Tokyo. Kenkyusha, (1958)
- [24] Joseph Emonds,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25] Etsko Kruisinga, *Current letters and philology*, *philology English Studies*, (1927)
- [26] P. A. Erades, *Contributions to Modern English Syntax*, IV. *Structure and character of attributive clauses in English*, M.Spack, (1955)
- [27] Bas Aarts, *Oxford Modern English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11)
- [28] Mun Goo Kang, *Modern English Grammar*, Seoul: Korean Munwhasa, (2017)